

# 글로벌 시대의 대도시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도시인문학 방법론 논의의 맥락에서—  
조나단 프리드먼과 짐멜의 이론을 중심으로\*

홍준기

**주제분류** 도시인문학, 현대철학, 정신분석학

**주요어** 도시, 짐멜, 조나단 프리드먼, 정신분석, 대도시, 근대성(현대성), 세계화

## 요약문

이 논문은 최근 국내에서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도시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도시는 사회과학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맑스주의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분히 경제환원주의적 연구가 큰 흐름을 이루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비환원주의적인 인문학적 도시연구 방법론을 수립하기 위해 짐멜과 조나단 프리드먼의 이론을 소개, 분석, 비판한다. 프리드먼으로부터는 세계화 시대의 도시인들의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며 그것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이 갖는 사회, 문화적 의미를 발견한다. 짐멜에서는 도시라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 존재하는 총체적 요소의 집합이라는 변증법적 도시이론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프리드먼과 짐멜의 이론을 정신분석과 결합시킴으로써 이 논문은 도시인문학의 방법론이 취해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 이 연구는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07-361-AM0027)

## 1. 문제의 제기:

상부구조/하부구조 논쟁의 반복의 장으로서의 도시학

근대의 성립과 산업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도시는 짐멜과 베버 등 1세대 도시사회학자들에 의해 중요한 학문적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 그 후 이들의 사상을 이어받은 미국의 도시사회학자들인 시카고학파의 손을 거쳐, 도시학은 마침내 오늘날 현대의 핵심적 학문분과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물론 도시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사실 최근 시작된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고대그리스에서 국가는 도시국가였으며 국가와 법률에 대한 관심은 곧 도시에 대한 관심에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다.<sup>1)</sup> 하지만 도시가 좁은 의미의 분과학문으로서 주목받은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짐멜은 도시를, 합리화, 비인격화, 추상화, 노동 분업 및 화폐경제 등의 특징을 갖는 현대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참조할 수 있는 하나의 예증이 아니라 그러한 사회의 성립과 진행이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적 요소로 보았다.

언급했듯이 짐멜과 베버, 그리고 시카고학파 등과 같은 초기 도시사회학자들, 그리고 벤야민과 같은 철학자들의 펜을 통해 도시는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부각되었고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바로 여기에서 도시학의 연구대상과 방법론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도시학의 고유한 연구대상은 무엇이며 어떤 관점에서 도시를 연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연구방법인가? 물론 도시학이라는 연구 분야의 성격상 도시를 어떤 하나의 시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일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도시를 철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면 그것은 도시철학이 될 것이며, 도시를 역사적 맥락에서 다룬다면 그것은 도시사학이라는 이

1) 이에 대해서는 예컨대 랑시에르(Lacncière)의 *Le partage du sensible*(La fabrique édition, Paris, 2000)을 참조하라.

름으로 분류될 것이며, 사회학 혹은 인류학, 혹은 심리학 연구방법론을 원용한 도시연구는 각각 도시사회학, 도시인류학, 도시심리학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적으로 보아 비교적 최근에 성립한 도시학이라는 연구 분야는 이렇듯 저마다 각기 학문적으로 훈련받은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개념 정의될 수 있다. 이렇듯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연구 분야를 도시라는 대상에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도시이론들이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연구방법론을 도시라는 대상에 적용한다고 해서 도시학이라는 학문분과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도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본문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미국 도시사회학의 개척자였던 시카고학파는 고유한 의미의 도시(사회)학을 정립하기 위해 특히 정주인의 ‘규모’라는 변수에 초점을 맞추었다. 짐멜 이론의 계승자로 자처하는 이들은 짐멜 이론 속에 존재하는 도시에 대한 다양한 논의 중 고유한 의미의 도시학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요소들, 예컨대 화폐경제와 노동 분업이라는 요소를 배제한 채 특히 규모, 밀도 등과 같은 변수들에 의존해 도시학의 연구범위와 대상을 규정하고자 했다. 화폐경제와 노동 분업이라는 요소들은 좁은 의미의 도시사회학이 아니라 경제학 일반, 혹은 사회학 일반이 다루어야 할 요소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짐멜이 도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간주했던 화폐경제와 노동 분업이라는 요소를 배제할 때에만 고유한 의미의 도시학이 가능해 진다는 견해는 타당한가? 도시는 단순히 정주자의 규모나 밀도만으로 환원될 수 있는 단순하고 단일한 실체가 아니다. 도시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정주민의 한 사람으로 밀집된 환경 속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정치 활동은 물론 문화 및 예술 활동을 수행하며, 도시라는 모호하며 냉혹한 환경이 제공하는 또 다른 혜택 속에서 전통과 관습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개인성을 획득하고 향유할 수 있다. 이렇듯 짐멜은 물론 벤야민에게도 도시는 소외의 현상이지만 동시에 전통의 아우라가 사라지고 해방된 개인이 탄생하는 새로운 희망의 장소였다.

지금까지 도시학의 연구동향 전체를 개괄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은 불

가능하므로 필자는 이제 이하에서 도시학의 방법론 및 이와 관련된 부분만을 부각시키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도시학의 대상과 방법론에 관한 도시사회학자들의 논쟁과 관련해 필자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시학의 방법론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할수록 도시학은 환원주의적 경향을 띠어간다는 점이다. 예컨대 갠스(Gans)는 도시에서의 규모와 밀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위스(Wirth)를 비판하면서 도시에서 중요한 요소는 계급과 주거의 불안정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갠스에 따르면 위스가 말하는 익명성 비개인성, 그리고 피상성은 규모, 밀도, 그리고 이질성의 결과라기보다는 주거의 불안정성의 결과이다.<sup>2)</sup> 달리 말하면 도시적 생활양식이란 혹은 도시성이란 주거의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갠스는 도시인의 경제적 상황이라는 요소를 중시하면서 도시(성)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갠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러한 관점은 “도시 중심부의 일부 지역들에서의 관찰 결과로 나온 견해로서<sup>3)</sup> 주거의 불안정성이 도시전체 인구의 행위를 설명하지 못한다.

시카고학과를 둘러싼 이러한 논쟁은 현대의 도시연구자들이 속한 학문적, 이념적 지형에 따라 보다 큰 맥락에서 다시 등장한다. 『공간의 생산』의 출간 이후로 르페브르의 도시연구는 특히 하비(Harvey) 등 현대의 널리 알려진 도시연구자들의 연구방향에 커다란 미쳤다.<sup>4)</sup> “지리적-역사적 유물론<sup>5)</sup>의 관점에서 도시이론을 정립하고자 했던 하비의 도시론은 경제주의적, 기능주의적 도식을 따르고 있다. 물론 하비는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sup>6)</sup>이라는 책에서 볼 수 있듯이 지구화의 맥락에서 문화적 상황과 변동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지만 하비의 문화이론은 근본적으로

2) 손더스 지음, 김찬호, 이경춘, 이소영 옮김, 『도시와 사회이론』, 한울, 1998, 113쪽.  
 3) 같은 책, 113쪽.  
 4) 예컨대 하비는 물론 포스트모던 도시이론가인 소자 역시 르페브르의 강력한 영향을 받은 도시학자이다.(에드워드 소자, 이무용 옮김,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각과 언어, 1997, 특히 117쪽 이하 참조)  
 5) 스미스 지음, 남영호, 홍준기 외 옮김, 『초국적 도시이론』, 한울, 2010, 55쪽.  
 6) 하비, 구동희, 박영민 옮김,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1997.

자본축적의 논리에 의해 설명되는 경제결정론적 시각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sup>7)</sup> 달리 말하면, 상부구조인 문화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한다고 할 지라도 그것을 자본의 축적과 실현 전략의 관점에서만 분석하므로 하비는 경제주의적 방법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비의 이러한 관점은 프레드릭 제임슨의 포스트모던론과 거의 유사하다. 『지정학적 미학』에서 제임슨은 세계 체제의 맥락에서 영화와 공간의 문제를 다룬다. 제임슨에 따르면, 영화 이미지와 재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언제나 사회적 총체성 자체에 관한 것 일 뿐이며, “또한 현대에 그것은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네트워크 문제 외에 그 무엇도 아니다. <sup>8)</sup> 이렇듯 현대 도시 이론의 흐름 속에서 과거에 존재했던 하부구조에 의한 상부구조 결정론이 도시라는 맥락에서 다시 재생산되고 있다.

이념적인 측면에서 맑스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하비나 제임슨의 방법론과 일치하지 않지만 사센과 존 프리드먼(John Friedmann)의 글로벌시티 형성에 관한 이론적 저작들은 사회문화적인 동학들을 희생시키면서 글로벌시티 발전에 대해 명시적으로 경제적이며 기술적인 설명들을 특권화한다.<sup>9)</sup>

방금 필자는 하비, 사센, 프리드먼 등 현대 도시이론가들의 경제주의적 편향을 지적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이클 피터 스미스의 견해를 인용했다. 하지만 초국적 도시이론의 대표 이론가로 알려진 마이클 피터

7) 스미스, 앞의 책, 59쪽 참조.

8) 제임슨 지음, 조성훈 옮김, 『지정학적 미학』, 현대미학사, 2007, 25쪽.

9) 스미스 지음, 남영호, 홍준기 외 옮김, 『초국적 도시이론』, 한울, 2010, 95쪽. 사센은 맑스주의자는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제주의적 도시이론가 중 하나이다. 그녀는 다국적 기업과 은행의 활동에만 주목해왔던 과거의 세계 도시연구의 한계를 넘어 그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 금융과 무역이외에도 세계 경제 조직의 조정, 통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생산자 서비스와 시장의 역할 등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사센, 남기범, 유환중, 홍인욱 옮김, 『경제의 세계화와 도시의 위기』 푸른길, 1998, 22쪽) 그녀는 결국 금융기업과 산업의 크기와 규모, 분포도(116), 인구 등과 같은 주요 경제지표(68)에 따라 세계도시(global city)를 선택하고 그것을 서열화하고자 한다. 사센, 존 프리드만의 글로벌 도시론에 대한 비판으로는 또한 스미스, 앞의 책, 95쪽 참조.

스미스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비판을 가할 수 있다. 예컨대 아리프 딜릭은 스미스의 초국가적 도시이론이 자신의 문맥에 어긋나게 페미니즘 이론을 원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이주나 유동성을 너무 강조한다고 비판한다.<sup>10)</sup> 그러나 딜릭의 이러한 비판이 내용적으로는 옳다고 하더라도 딜릭의 이러한 비판은 궁극적으로 경제주의에 입각한 비판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필자가 보기에 마이클 피터 스미스의 견해의 문제점은 다른 곳에 있다. 스미스는 기능주의적, 경제주의적 도시이론을 비판하면서 행위자의 능동적, 주체적 행동을 강조하고 그들에 의한 집단적 정치행위와 이를 통한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해방적 측면을 중시한다. 하지만 기능주의적 설명을 넘어서기 위해 그가 제시하는 주체적 측면의 행동은 초국적으로 결합하는 종족들 간의 정치적 행위에 국한되며 따라서 개인 및 집단 주체의 문화적, 심리적, 미학적 측면들이 논의에서 사상된다.

필자는 지금까지 논의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대의 도시학을 정초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고찰해야 할 주체성의 문제를 문화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계체제 인류학이라는 개념으로 알려진 조나단 프리드먼(Jonathan Friedmann)의 이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조나단 프리드먼의 이론을 검토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대의 도시이론에서 주체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저자는 거의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라쉬나 세네트 등 논자들이 현대성의 문제를 주체의 문제와 관련해 다루기는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만으로는 현대적 주체를 다루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sup>11)</sup> 현대 문화를 나르시시즘의 문화로 진단하는 이들 논자들의 주장은 물론 매우 설득력 있지만 이 역시도 너무 일반화한 견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대인의 삶과 정신의 양태들, 즉 다양한 정체성들을 추출할

10) 딜릭, 「초국주의의 이론과 실천: 활용, 요용, 남용」,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 연구소편, 『도시인문학연구』, 제2권 2호, 2010, 21-22쪽.

11)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조나단 프리드의 주체성에 관한 논의도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조나단 프리드먼에 대한 비판적 서술은 이 논문의 말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수 있으며 이러한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정체성들의 상호관계, 연결성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반면 조나단 프리드먼은 프로이트와 라깁 정신분석학을 원용해 글로벌 시대의 문화정체성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다루는 데 ‘원칙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필자는 대도시인의 정체성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도시에서의 개인 및 집단 주체의 형성과 변화, 도시속에서 발생하는 정체성이 곧 문화적 현상이라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조나단 프리드먼의 이론은 또한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문화환원주의적 관점을 배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는 배버적 관점에서 세계 체제론을 재해석하면서 정치, 경제적 제도의 문제와 문화의 문제를 비환원주의적으로 다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비록 조나단 프리드먼이 도시학자는 아니지만, 도시인문학 방법론의 정착을 위해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프리드먼이 정신분석이론을 원용하고 있으나 자신의 정체성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필자는 조나단 프리드먼의 이론을 보완 혹은 비판하면서 그의 논의를 한 걸음 더 진척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시 필자는 도시학의 진정한 선구자였던 짐멜의 이론을 우리의 맥락에서 다시 검토하면서 대도시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주체의 도시이론을 위한 도시인문학적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현대적 정체성 형성의 기반으로서의 도시

주체 혹은 자아의 정체성의 문제가 학문적, 일상적 주제로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 주체 혹은 자아의 정체성이 외부의 권위—주체 외부에 존재하는 더 큰 사회망으로서의 집단, 종교적 교의, 혹은 우주론/존재론—에 의해 결정되던 시기에는 각 개인의 정체성은 논의 밖의 일이었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적어도 원리적으로 주체에 근거해 인식과 지식의 확실성을 정초했다는 점에서 주체의 진정한 확립을 알

리는 출발점이었다. 물론 데카르트 역시 아르키메데스의 점으로서 코기토를 확립할 수 없었으므로 궁극적으로 ‘속이지 않는 신’에 의존했지만 말이다.<sup>12)</sup> 그러한 한에서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아직 진정한 주체성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주체성에 대한 원칙적인 천명이었을 뿐 아직 현실적으로 진정한 현대적인 주체가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주체성의 출현이 사회와 문화, 인간관계, 개인의 실존적인 내밀한 삶에서 현실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음으로써 현대성이 출현한 시기는 19세기 중반이라는 것에 많은 논자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 같다.<sup>13)</sup>

진정한 현대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고독한 원자적 개인의 출현이 요구된다. “문화적 생산의 한 형식으로서 현대성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개별주체에 대해 위계적이고 총체적이며, 천부적이고 전체화된 전통적 구조의 해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대화 과정은 다양한 형식을 취하는 복잡한 과정이지만 역사적으로 상업화과정을 통해 잘 표상된다. “상업화과정이란 친족, 카스트, 신분 질서를 갖춘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의무-기대의 연결망이 침식 된다는 것을 뜻한다. 비록 그러한 침식이 “역사적으로 다양하고 불완전한 14)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앞으로 다시 논의하겠지만 짐멜 역시 개인주의의 진정한 출현을 화폐경제와 노동분업의 보편화와 관련시켜 설명한다. 화폐경제는 개인을 전통과 종교, 집단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며 개인의 질적 규

12) Joon-kee Hong, *Der Subjektbegriff bei Lacan und Althusser*, Peterlang, Frankfurt am Main, 2000, 23-29쪽 참조.

13) 버만(Berman)에 따르면 이 시기에 괴테의 『파우스트』, 맑스의 「공산당 선언」, 보들레르의 「여행(Le Voyage)」, 스투어트 밀의 『자유론』, 니체의 『권력의 의지』 등이 발표되었으며 이러한 작업들은 현대사회의 불안과 절망, nihil리즘, 그리고 이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자유를 표현한 대표적인 업적들이다.(Berman, “Why modernism still matters?”, S. Lash and J. Friedmann(ed.), *Modernity and Identity*, Blackwell, Oxford UK & Cambridge USA, 36-37쪽 참조.)

14) 조나단 프리드먼 지음, 오창현, 차은정 옮김, 『지구화 시대의 문화정체성』, 당대, 2009, 375쪽.

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화폐경제와 노동분화의 보편화와 더불어 인간은 사회적 역할로 주어지는 추상적 인격을 받아들이며 소외되지만, 신분적 강제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개인은 개성과 자신의 특수성, 내면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이러한 개인주의화는 부에 대한 접근성의 점진적인 탈중심화,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는 방식으로 타자에게 스스로를 표상할 수 있는 인격적 능력, 그에 따른 신분위계의 붕괴와 관련 있다.<sup>15)</sup>

좀 더 실존적으로 표현하면 현대적 주체는 신을 포함한 타자에 대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의존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으로 표현되는 인격의 총체를 의미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주체의 정체성은 타자의 시선과 무관하지 않게 형성된다. 원자화되고 파편화된 개인, 세계에서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는 현대적 주체성은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궁교롭게도 필연적으로 타자의 시선을 필요로 한다. 알프레드 그로세르(A. Grosser)는 주체의 정체성 형성을 설명함에 있어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정체성, 즉 추상적인 정체성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문화적, 사회적 요소의 중요성, 즉 구체성 속에서 현존하는 타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내가 보기에 나의 정체성은 내 소속들의 총합이다. 16) 이렇듯 주체의 정체성은 궁극적으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므로 주체는 필연적으로 타자와 갈등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방금 언급한 저자인 알프레드 그로세르는 자신의 아버지의 유대인이라는 일차적인 정체성은 다름 아닌 히틀러의 손가락을 통해 부여되었다고 말한다<sup>17)</sup>. 알프레드 그로세르가 말하는 문화, 사회, 정치적 맥락에서 주어지는 소속 중 하나 혹은 다수 혹은 총체로 정의되는 정체성 개념은 보편적인 인간이라는 추상을 통해 주어지는 정체성 개념이 갖는 한계들을 보여주고 주

15) 프리드먼, 앞의 책, 375-376쪽.

16) 그로세르 지음, 심재중 옮김, 『현대인의 정체성』, 한울, 2002, 21쪽.

17) 같은 책, 19쪽.

체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예컨대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은 인간과 시민의 인권을 천명하지만 실제적으로 한 개인의 정체성은 그가 속한 집단, 계층, 수입의 총액 등의 요소들과 관련해 타인으로부터 차별적으로 혹은 특권적으로 주어진다.

여기에 현대인의 정체성이 갖는 모순적 성격이 있다. 현대인은 기존의 전통 및 신분적 질서로부터 벗어나 개인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정체성 형성의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룬 바 있는 라캉에 따르면, 정체성은 사회 혹은 타자와 무관하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대적 주체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에 동일화하거나 직업적 강제에 종속함으로써 주어지는 ‘사회적 자아’와, 이것으로부터 분리된 ‘고유한 주체’ 사이의 분열을 경험한다.<sup>18)</sup> 개인이 사회적 질서, 위계, 전통에 완전히 복속되어 개인의 고유한 주체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분열이 존재하지 않는다.<sup>19)</sup>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은 집단의 전통으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로의 복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기대하지도 않는 현대인들은 정체성의 분열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다양한 정신병리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 이러한 현대적 정체성이 글로벌 시대의 대도시인에서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러한 다양한 정체성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대도시와 현대적 주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짐멜에 따르면 현대적 의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장소가 다름 아닌 대도시이다. 대도시를 다룬 고전적인 논문인 「대도시와 정신적 삶」에서 짐멜은 복잡한 현대적 삶이 등장함으로써 전통의 해체가 일어나는 현장 속에 살고 있는 도시인은 전근대적 인간과는 달리 새로운 인성과 정체성을

18)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홍준기, 『라캉과 현대철학』, 문학과지성사, 1999, ix 쪽 이하, 그리고 134쪽 이하 참조.

19) 예컨대 아프리카의 문화적 정체성을 연구한 오르티게스에 따르면 전통적, 사회적 질서로부터 개인성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는 개인적 주체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M.C. and E. Ortigues, *Edipe Africain*, L'Harmattan, Paris, 1984 참조)

가진 주체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도시 속에서 개인은 전통과 친족구조, 전통적 종교로부터 해방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도시는 익명성과 소외로 내몰리는 장소이다. 개인은 군중 속에서 고독과 우울, 불안을 경험한다. 종종 사람들은 퇴니스의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의 구분에 따라 농촌과 도시를 대립된 사회관계로 묘사해왔다. 소규모의 농촌공동체에서 사람들은 친밀하고 중첩되는 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그들은 응집력 있는 전체 문화로 묶이게 된다. 게젤샤프트인 도시에서 사람들은 비인격적이고 도구적으로 상호 작용한다. 사람들은 더욱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친밀한 인관관계는 특수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다.<sup>20)</sup>

짐멜의 이 고전적 논문의 핵심적 관심사는 다름 아닌 도시문화가 현대성의 문화라는 것을 보이는 것에 있다. 손더스에 따르면 짐멜은 도시를 단지 현대에서 사회관계를 규정짓는 합리성, 비인간화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들에 대한 ‘예증’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도시를 그러한 사회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다.<sup>21)</sup>

짐멜은 대도시를 특징짓는 요소로 도시인의 반응의 지성화, 화폐경제, 노동분업을 제시한다. 대도시인의 전형적인 심리적 기반은 신경과민이다. 대도시 속에서 인간은 과도하게 밀려드는 강렬하고 많은 인상들에 의해 압도 되므로 **지적인** 반응을 통해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 “대도시를 걸을 때 나 “다양한 경제적, 직업적, 사회적 삶을 경험할 때 <sup>22)</sup> 사람들은 “인상들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충격과 내적인 동요를 겪는다. <sup>23)</sup> 그리하여 사람들은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오성 을 최대한 가동시키 외적인 감성적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 한다. 그리하여 대

20) 새비지/워드 지음, 김왕배, 박세훈 옮김,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한울, 2002, 128쪽.

21) 손더스, 앞의 책, 100쪽.

22) 짐멜, 『대도시와 정신적 삶』, 짐멜, 김덕영, 윤미애 옮김,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36쪽.

23) 같은 책, 37쪽.

도시인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적인 반응 24)을 보인다. 대도시는 감성을 희생하는 대가로 지성화가 발생하는 장소라는 것이다.

“화폐경제의 본거지로서의 대도시 25)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든 성질과 특성을 단지 수량적인 문제로 평준화시키는 교환가치만을 문제 삼고 [자] 한다.26) “사람들 사이의 정서적 관계는 모두 그들의 개체성에 기초하는 반면, 이성적 관계는 사람들을 마치 숫자를 대하는 것처럼, 즉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업적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 그 자체로는 무관심한 요소로 다룬다. 27) 교환의 보편적 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경제의 발달과 함께 대도시인은 감성보다는 타산적 지성을 가지고 사물과 인간을 대한다. 교환가치의 전면적인 지배와 더불어 추상적, 형식적 교환가치의 확립과 통용이 중요시된 근대적 도시의 삶에서는 형식적 정의가 냉혹한 무차비와 종종 결합한다. 화폐경제의 본거지인 대도시에서 사람들은 삶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자신의 “비합리적 본능과 지배적 기질과 충동들을 배제 28)시키지 않을 수 없다. 짐멜에 따르면 러스킨이나 니체 같은 인물들이 대도시에 대해 느끼는 혐오감도 똑같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화폐경제야 말로 대도시인의 둔감함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인데29), 이와 더불어 노동분업 역시 도시 내부에 여러 가지 극단적인 형태를 낳는다.30) 예컨대 도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개인들인 수요자를 둘러싼 경쟁을 벌여야만 하고 자신의 성과를 전문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도시의 삶은 “생계를 위한 투쟁을 자연과의 투쟁에서 사람을 둘러싼 투쟁으로 변화시킨다. 31)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도록 만들기 위해

---

24) 같은 곳.

25) 같은 곳.

26) 같은 책, 38쪽.

27) 같은 곳.

28) 같은 책, 40쪽.

29) 같은 책, 41쪽.

30) 같은 책, 48-49쪽.

31) 같은 책, 49쪽.

유별난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으며, 남들보다 돋보인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느끼게 된다. 짐멜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이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소도시의 관계와 비교해 볼 때 대도시의 존재형식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대도시에서 개인들의 만남은 짧고 드물기 때문에 대도시인은 자신의 “개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유혹 32)을 크게 받는다.

짐멜은 대도시에서의 정신의 소외라는 특징을 “주관적 정신에 대한… 객관적 정신의 우위 33)라는 용어로 요약한다. 이것은 일종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현대문화의 발전은 객관정신이 주관정신보다 더 우세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다시 말해 언어나 법률, 생산기술이나 예술, 과학이니 가정용품들에 구현된 정신의 총합은 나날 이 발전하는데 비해 인간주체들의 정신적 발전은 매우 불완전하며 점점 더 뒤쳐진다. 객관적 정신의 발달과 함께 개인은 이제 무시해도 좋은 존재로 격하된다. 34) 짐멜에 따르면 “대도시는 모든 개인적인 것을 초월하는 문화의 본래 터전이다. 대도시에서는 건물과 교육 시설들, 공간을 뛰어넘는 기술의 기적과 편의 시설들, 공동체적 삶의 형태들 그리고 국가의 제도들안에 엄청난 양의 정신이 비인격적인 결정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 35)

하지만 대도시는 지금까지 언급한 부정적인 측면만 갖는 것이 아니다. 촌락이나 소도시와 달리 대도시 거주자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격의 내적, 외적 자유 가 증가한다. 대도시 속에서 각 개인은 근본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아간다.36) 대도시의 규모는 그것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대도시 속에서 획득된 자유는 그것 자체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더욱 증대된다. 짐멜에 따르면 대도시에서의 자유를 비단 이동의 자유라든가 편견이나 고루함의 제거와 같은 소극적 의미뿐만 아니

32) 같은 책, 50쪽.

33) 같은 곳.

34) 같은 곳.

35) 같은 책, 51쪽.

36) 앞의 책, 48쪽.

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도시에서는 각 개인이 삶 자신의 본성의 표출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신의 본성을 따르고 있음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곳이 다름 아닌 대도시이며, “바로 여기에 자유가 있다. “...대都市는 공간적 크기와 다양한 생활양식에 힘입어 개개인에게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보존하고 주체적-인격적 특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한다. 37) 짐멜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듯이 말이다. “대都市는 인간의 발달에 무한한 의미를 가진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된다. 대都市는 인간의 삶을 포괄하는, 서로 대립적인 조류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회합하고 전개되는 위대한 역사적 산물 중 하나이다. 38)

논의를 더 진행하기 전에 짐멜의 생각을 이어받아 나름대로 현대성의 문제를 전개한 기든스의 이론에 대해 살펴보자. 기든스는 『현대성과 자아정체성』에서 현대성의 특징을 산업주의와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사회적 양식으로 파악한다. 기든스는 근대적 세계를 “산업화된 세계”와 대체로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며 산업주의를 “생산과정에서의 물리력과 기계의 광범위한 사용에 내포된 사회적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39) 그리고 자본주의란 “경쟁적 생산물 시장과 노동력의 상품화 모두를 포함하는 상품생산체제로 간주한다.40) 이러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시한 후 기든스는 현대성의 세 특징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① 시간과 공간의 분리, ② 탈피기계, ③ 제도적 성찰성.

시간과 공간의 분리란 전근대 시기와 달리 근대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뜻한다. 전근대적 시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활동에서 시간과 공간은 특정한 한 장소에 묶여 있었지만41) 근대 시기에

37) 김덕영, 『현대의 현상학: 게오르그 짐멜 연구』, 나남출판, 1999, 138쪽.

38) 짐멜, 앞의 책, 53쪽.

39) 기든스 지음, 권기돈 옮김,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새물결, 1997, 58쪽.

40) 같은 곳.

41) 같은 책, 61쪽.

인간들은 장소의 특수성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며 사회 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 물론 기든스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이 분리된다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 인간의 사회적 조직화에서 상호 무관한 측면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이다. 42) 하비가 시공간 압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듯이 시공간의 분리는 특정한 장소와 관련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분리가 일어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오히려 물리적 제약을 넘어 더 빠른 속도로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탈피기제에는 상징적 증표와 전문가 체제라는 두 유형이 있다.43) 상징적 증표란 표준 가치를 가진 교환매체이며 가장 중요한 매체는 화폐다. 화폐 경제의 발달과 함께 현대성이 출현하고 사회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추상적이 된다. 이러한 화폐는 시간을 팔호치고(신용수단이 되기 때문에) 공간을 팔호친다(공간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당사자들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전문가 체제는 전문적인 지식에의 의존이 강해진다는 것을 함축하는데, 그것은 기술적 전문지식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관계 자체와 내밀한 자아로 확대된다. 그리하여 기든스는 과학자, 기술자, 공학자만큼 의사, 카운슬러 심리치료사 등이 현대에서는 전문가 체계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한다. 사회체제의 탈피란 단순히 기능들의 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 체계가 존재함으로써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한된 기술적 지식보다는 전문가들의 지식에 의존하며, 이러한 전문가 체계는 현대인의 자아의 신념 및 참조점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44)

기든스에 따르면 현대성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성찰성이다. 기든스에 따르면 현대성은 본질적으로 탈전통적인 질서로서 탈피기제와 더불어 등장하는 시공간의 변모는 사회생활을 기성의 시침이나 습관의 굴레로부터 풀어준다.45) 바로 이것이 성찰성으로서 현대의 성찰성은 “사회적 활동의

42) 같은 곳.

43) 같은 책, 63쪽.

44) 같은 책, 64쪽.

45) 같은 책, 65쪽.

대다수 측면의 가변성 또 자연과의 물질적 측면의 가변성을 뜻하며, 새로운 정보나 지식에 비추어 이루어지는 항상적인 수정을 뜻한다. 46) 그리하여 근대인은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현대적 제도와 삶을 구성할 수 있다. 기든스는 이러한 근대적 성찰성이 계몽주의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계몽주의와는 다른 측면을 강조한다. 그것은 근대의 성찰성은 지식의 확실성이 침식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회생활의 조직화와 변형을 위한 구성적 요소인 것이다. 4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은 현대성의 세 특징들을 자아 혹은 자아정체성의 문제와 결부시켜 주로 논의를 진행한다(48) 기든스의 이 책은 본 논문의 주제인 대도시인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선 기든스의 현대성에 관한 논의는 짐멜의 현대성 및 대도시에 관한 논의로부터 영향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든스가 말하는 성찰성은 짐멜이 말하는 대도시인의 각성된 주체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기든스의 논의는 조나단 프리드먼이 지적하듯이 현대성이 갖는 다양한 특성들을 이론적으로 연결시켜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기든스는 현대성의 이 세 가지 특징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특징들을 나열하며 설명하지만 이러한 특징들이 서로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49)

또한 기든스는 성찰성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세넬트(R. Sennet)와 래쉬(C. Lash)의 현대 문화론 혹은 자아(정체성) 이론은 현대사회 속에서 행위자의 능동적 행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50) 물론 기든스와 달리 세넬트와 래쉬가 성찰성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형식적으로 본다면 옳다고 할 수는 있다. 기든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원론적으로 본다면 현대 도시에서의 삶

46) 같은 곳.

47) 같은 책, 66쪽.

48) 같은 책, 39쪽.

49) 프리드먼, 앞의 책, 391쪽.

50) 기든스, 앞의 책, 284쪽.

에서도 공적 영역이 완전히 쇠퇴한 것도 아니며, 자기도취적 나르시시즘이 현대인의 삶을 모두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든스는 이러한 원론적인 비판에 그칠 뿐 정작 자신은 현대도시인의 자아와 주체, 자아 정체성에 관하여 이론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현대성과 자아정체성』에서 자아의 문제를 주제로 삼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현대사회에서 자아의 문제를 둘러싼 제반 문제들, 즉 자아정체성과 관련된 다수의 문제들을 수집해 나열하고 있을 뿐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반면 프리드먼은 정신분석학을 보다 직접적으로 원용해 다양한 문화정체성과 이들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의를 제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도시라는 연구 대상을 둘러싼 기존의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학의 학문적 성격과 관련된 방법론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3. 도시인문학의 대상으로서의 도시:

도시인문학인가 도시과학인가—

짐멜과 시카고 학파의 도시연구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논평

도시학의 대상은 무엇인가? 물론 그것은 도시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답은 동어반복적인 것으로 유의미한 학문적 대답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를 더 명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져보자. 도시는 과학적 연구의 대상인가? 과학과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대해 탐구했던 초기 알튀세르에 따르면 어떤 하나의 분과학문이 과학이 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는 과학은 잘 정의되고 분명한 연구 대상을 가져한다는 것이다.<sup>51)</sup> 이러한 초기 알튀세르식의 논의에 따르면 도시과학이 하나의 과학으로 성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론적 대상으로서 도시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도시과학 혹은 도시사회학의 대상

51) 알튀세르 지음, 김진엽 옮김, 『자본론을 읽는다』, 두레, 1991, 75쪽 이하 참조.

으로서 도시는 존재하는가?

베버와 짐멜과 같은 독일 사회학자를 잇는 도시사회학의 제2세대로서 미국 도시사회학의 창시자인 시카고 학파들(파크, 위스, 레드 필드 등)은 도시과학(도시사회학)의 대상으로서 도시를 규정하는 명확한 범주들을 확정함으로써 도시사회학에 확고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위스, 그리고 그의 스승인 파크는 특히 도시의 거주 규모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제반 결과들에 근거해 독자적인 도시적 생활양식을 설정하고 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거주자의 규모라는 관점에서 도시 혹은 도시적 생활양식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과학의 대상과 이론을 확정하려고 했다는 바로 그 점에서 이들 학자들은 후에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도시사회학 혹은 도시과학의 독자적인 대상으로서의 도시를 특수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들 시카고 학파를 둘러싼 논의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루이스 위스(Louis Wirth)는 도시사회학이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시라는 정주공간을 고유하게 분석할 수 있는 특정한 변수들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이 세 변수는 “인구 집합의 크기, “밀도, “이질성”<sup>52)</sup>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점은 위스는 짐멜이 도시를 규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자주 언급하는 규모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만 그 밖의 다른 요소들, 즉 화폐경제, 분업이라는 개념을 도시 분석을 위한 작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사실이다. “도시론을 산업화와 현대자본주의와 혼동하는 위험을 주목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sup>53)</sup> 여기에서 우리는 짐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스가 짐멜의 도시연구 방법론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피터 손더스의 입장과 일

52) L. Wirth, “Urbanism as a way of life”, R. Sennet(ed.), *Classic Essays on the Culture of Citie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1969, 151-158쪽.

53) 같은 글, 148쪽.

맥상통한다. 그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등장하는 여러 변수 및 요소들이 설령 대도시와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소들이 도시에만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사회조직 양식의 특징인 것이다. 위스의 방법론적 논의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잘 이해될 수 있다. 산업주의 시대뿐만 아니라 전산업주의 그리고 전자본주의 시대에도 도시는 존재했으므로 도시 연구를 산업화 혹은 현대자본주의와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따라서 분업과 화폐경제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짐멜의 논문은 특별히 도시이론이라고 할 수 없다.<sup>54)</sup>

마이클 새비지와 알렌 와드 역시 도시와 농촌을 대비시키고 도시화된 사회에서는 일차적인 사회관계가 약해지고 쇠퇴한다는 시카고 학파의 위스(Wirth)의 견해를 비판한다. 마이크 새비지와 알렌 와드에 따르면 위스는 짐멜 이론을 잘못 받아들였다. 즉 공간이라는 물리적 조건과 관계된 정주형태로서의 도시적 생활양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따로 분리해 설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새비지와 와드에 따르면 짐멜의 고전적 논문의 관심은 정주 규모와 도시문화의 직접적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기보다는 도시문화가 현대성의 문화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짐멜로부터 영감을 얻어 논의를 발전시킨 위스와 달리 짐멜 자신은 “농촌적 생활양식으로부터의 공간적 차별화가 아닌, 보다 오래되고 전통적인 문화로부터 시간적 차별화를 고려하는 대안적 접근을 원했고 “이것이 바로 짐멜 자신이 발전시킨 입장이다.<sup>55)</sup> 즉 짐멜은 위스와 달리 도시 자체가 이러한 문화적 형태의 원인이라고 보지 않았으며<sup>56)</sup> 도시 자체의 인과적 영향이 아니라 ‘화폐경제의 중심지로서의 도시의 역할’을 강조했다.<sup>57)</sup> 근대사회는 화폐경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통사회와는 아주 다른 문화적 속성을 갖는다.<sup>58)</sup> 요컨대, 새비지와 와드에 따

54) 손더스, 앞의 책, 100쪽.

55) 새비지/와드, 앞의 책, 143쪽.

56) 같은 책, 144쪽.

57) 같은 책, 145쪽.

58) 같은 책, 146쪽.

르면 짐멜의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현대성의 본질이 일관된 생활양식을 전혀 발견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근대성의 본질은 심리주의, 즉 내부 생활의 반응이라는 관점, 그리고 실제 내부 세계로서, 세계에 대한 경험과 해석이며 동시에 영혼의 유동적 요소에 있어 고정된 내용의 용해, 즉 영혼의 유동적 요소로부터 실재적인 모든 것이 걸러지고 그 형태는 단지 움직임이 되는 것이다.”<sup>59)</sup>

더 나아가 새비지와 와드는 대도시가 개인주의와 익명성, 고독만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기 위해 대도시 속에도 공동체가 존재하며, 친밀성의 유지가 가능함을 역설한다.<sup>60)</sup> 위스는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새비지와 와드의 이러한 비판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새비지/와드는 도시에도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친밀성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위스를 비판하지만 이러한 비판도 너무 극단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위스 역시 도시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 <sup>61)</sup> 이기지만 공동체적 친밀성, 상호의존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스는 도시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인종적, 종족적 유산 (heritage),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지위, 취향, 선호도에 따라 “공간적 분리(segregation)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sup>62)</sup> 앞에서 언급했듯이 위스는 도시사회학을 규정하는 세 변수로서 인구수, 밀도, 이질성을 제시했다. 도시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인종, 종족,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공간적 분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도시에서는 이질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위스가 도시의 핵심 요소로서 이질성을 강조한다고 그것이 완전한 개인주의, 혹은 나뉠대로의 친밀성을 가진 특정한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질성’이라는 소재목이 불

59) David Frisby, *Fragments of Modernity*,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es, 1986, 1쪽, 새비지/와드, 앞의 책, 146쪽에서 재인용.

60) 같은 책, 140-143쪽.

61) L. Wirth, 앞의 글, 153쪽.

62) 같은 글, 149-150쪽.

은 항목에서 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주지, 장소, 직업의 성격, 소득, 관심사가 다양해지며, 조직을 유지하고 성원들 사이의 친밀하고 영속적인 사귀를 유지하고 촉진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위스는 적어도 “인종, 언어, 소득 그리고 사회적 지위 에서 공통점을 가진 집단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결속된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3)</sup> 파크(Park)에 따르면 가족 등 대면적 관계인 일차적 관계가 약화되면서 예컨대 “학교, 교회 와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차관계 가 그 역할을 “대체 할 수 있다.<sup>64)</sup> 손더스가 말하고 있듯이 대도시에서의 관계성의 상실에 대응하는 방법은 ‘기능분화’라는 것이다. 그런데 분화과정에서 등장하는 동질적인 집단은 소위 ‘자연지역’이라는 도시의 다른 부분 속에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도시에서 나타난 약탈적인 관계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연대의 발달에 의해 도시의 다른 부분들내에서 조절된다.<sup>65)</sup>

겐스(Gans) 역시 위스의 견해를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도시적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규모, 밀도, 이질성이라기보다는 주거의 불안정성이다.<sup>66)</sup> 즉 설사 위스의 세 변수로 사회관계의 성질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이 혼용되기 때문에 도시적 생활양식의 특수성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집단의 성격에 따라 도시를 대하는 태도와 성격이 달라진다. 예컨대 학생, 지식인 집단은 문화적 중심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도시에 살기를 원하고, 도시주민들은 도시적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단지 도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즉 겐스는 사회관계의 분석방향을 생활양식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것로부터 생활양식의 선택에 관한 연구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보

63) 같은 글, 157쪽.

64) R. Park, “The City: Suggestions for the Investigation of Human Behavior in the Urban Environment”, R. Sennet(ed.), *Classic Essays on the Culture of Citie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1969, 110쪽.

65) 손더스, 앞의 책, 105쪽.

66) 같은 책, 113쪽.

았다. 그리고 갠스는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소를 계급과 생활주기(주거의 불안정성 정도)로 보았다.<sup>67)</sup>

갠스의 비판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도시라는 특수한 생활공간, 혹은 특수한 생활양식에 대한 사회학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학자는 도시적 혹은 교외적 생활양식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듀이 역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인간정주에서의 변수는 사회관계의 익명성, 분화, 이질성, 비개인성 및 보편성이 될 수 있지만, 농촌과 도시의 문화요소들은 규모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다.<sup>68)</sup> 정주규모에 따라 독자적인 도시적 생활양식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듀이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의 차별성에 관한 문화이론에 의해 규정되는 규모의 효과는 “실재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sup>69)</sup>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갠스, 듀이, 그리고 일정 정도 손더스에 따르면 위스가 제시한 연구 방법, 즉 규모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분석은 정확한 의미의 도시이론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시이론이 아니라 공간적 요소가 여러 개의 변수 중 하나로서 고려되는 **다른 분야의** 이론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예컨대 위스의 이론은 규모와 밀도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회심리학적 이론이 되어버리고 만다.<sup>70)</sup> 즉 인간정주 규모는 사회관계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이며 따라서 그것을 집약되고 전문화된 연구대상(즉 도시이론)으로 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위스가 말하는 변수만으로는 고유한 의미의 도시이론을 구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적 생활양식, 농촌적 생활양식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71)</sup>

지금까지 설명한 바 있는 도시사회학 방법론과 대상 규정에 관한 고전

---

67) 같은 책, 114-115쪽.

68) 같은 책, 118쪽.

69) 같은 책, 119쪽.

70) 같은 곳.

71) 같은 책, 115쪽.

적 논쟁은 다시 한 번 우리로 하여금 도시(과)학의 연구 대상과 방법론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도록 한다. 위스에 따르면 규모만이 고유한 도시이론을 다룰 수 있는 변수이며, 반대로 이를 비판하는 논자들에게 따르면 규모의 요소는 오히려 고유한 도시이론의 변수라기보다는 다른 이론(예컨대 사회심리학 이론)과 관련되거나 혹은 도시이론과 관계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고유한 의미의 도시이론을 근거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도시이론의 고유한 대상, 어떤 이론을 고유한 의미의 도시이론을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란 무엇인가? 앞에서 보았듯이 갠스는 계급과 생활주기가 그것이지만, 계급이나 생활주기라는 개념 역시 고유한 의미의 도시이론의 요소가 아닐 뿐 아니다. 설령 그러한 개념만으로는 결코 도시적 생활양식의 독자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요소가 반드시 도시이론에만 국한되는 고유한 요소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것 역시 경제학 혹은 사회심리학의 대상이라고 여전히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위스에 대한 많은 논자들의 비판, 역시 상대화되어야 한다. 규모의 효과는 실재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듀이의 말을 뒤집어 말하면, 도시의 규모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실재한다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규모의 효과만으로 독자적인 도시적 생활양식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규모의 효과가 도시인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만큼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가 여기에서 위스의 도시방법론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점은 도시이론 방법론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특정한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도시라는 것 자체가 이미 몇몇 고정된 변수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확고한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도시 그 자체를 넘어서는 총체적인 요소들이 중층결정되어 구성된 이론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위스를

비판하고자 했던 논자들의 주장도 좁은 의미의 도시이론이 아니라 결국은 경제학, 혹은 (사회)심리학의 요소들로 귀결될 뿐이라는 비판이 타당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화폐경제나 자본주의, 분업이라는 요소를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로 간주하고 좁은 의미의 도시사회학의 연구분야와 대상, 방법론을 확정하고자 했던 위스의 논의 또한 완전히 의의를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도시이론의 연구 대상과 요소들에 논의가 미궁에 빠져드는 까닭은 궁극적으로 도시를 ‘과학적’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과학적 대상이라는 표현은 초기 알튀세르적 의미이다. 그는 어떤 이론이 과학으로 성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명확한 대상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튀세르는 이러한 시도가 어떤 특정한 변수를 특권화하고, 따라서 그 이론이 스스로를 과학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대상을 과도하게 고정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접근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즉 초기 알튀세르는 과학적 대상을 이론적으로 확정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중기의 알튀세르는 대상은 사유 속에서 구성하는 이론적 작업 그 자체가 이론의 대상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부당하게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더욱 강하게 경고했다.<sup>72)</sup> 이러한 알튀세르의 입장을 우리의 논의에 적용하면, 도시학의 대상을 일의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특정한 변수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환원주의적 입장, 혹은 이데올로기적 입장으로 귀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일의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과학적 대상으로서 도시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도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예컨대 레드필드는 베버의 이념형 모델에 따라 도시를 분류하고 그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는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지만<sup>73)</sup> 경제적 요소<sup>74)</sup>, 그리고 더 나아가

72) 알튀세르 지음, 김동수 옮김, 「아미앵에서의 주장」, 알튀세르, 『아미앵에서의 주장』, 숲, 1991, 159쪽 이하 참조.

73) R. Redfield, “The Folk Society”, R. Sennet(ed.), *Classic Essays on the Culture of Citie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1969, 211쪽.

심리적 측면<sup>75)</sup>도 고려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아니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한 걸음 후퇴해서) 레드필드는 이차적 도시화가 발생하고<sup>76)</sup> 및 문화적 탈조직화가 커질 때 도시적 생활양식을 분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sup>77)</sup> 물론 도시적 생활양식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르면 과도한 주장이다. 하지만 레드필드처럼, 그리고 심지어 르페브르처럼<sup>78)</sup> 도시화의 진행이 필수적이라고 믿는 저자들에게는 도시적 생활양식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 생활양식이 된다. 왜냐하면 심지어 농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배후의 도시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도시적 생활양식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레드필드, 그리고 르페브르와 같은 학자들에서 도시적 생활양식이라는 표현은 농촌적 생활양식과 대립되는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정주양식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달리 말하면 거의 ‘형이상학적이고 목적론적인’ 개념으로 기능한다.<sup>79)</sup> 레드필드나 르페브르의 관점에 따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주형태는 사실상 곧 도시밖에 없으므로 도시란 사실상 특정한 의미를 상실한 모호한 대상이 될 뿐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논의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짐멜의 이론에서 도시 연구에 적절한 어떤 방법론적 함의를 읽어낼 수 있다고 본다. 위스는 물론 위스를 비판하고자 했던 갠스 같은 도시이론가들, 그리고 더 나아가 현대의 저명한 도시이론가들 역시 도시이론의 고유한 변수 혹은 도시이론의 대상을 일의적으로 확정하려고 시도하는데 그 점에서 이들 모두는 도시를 바라보는 총체적인 시각을 상실하고 있으며, 도시성을 일의적으로 혹은 환원주의적으로 파악하고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74) 같은 글, 212쪽.

75) 같은 곳.

76) 앞의 글, 215쪽.

77) 같은 글, 223쪽.

78) Henri Lefèbvre, *The Urban Revolu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London, 2003, 15쪽.

79) Sennet, Richard, "Introduction", R. Sennet(ed.), *Classic Essays on the Culture of Citie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1969, 18쪽 참조.

다. 바로 이 점에서 짐멜의 이론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짐멜 이론의 핵심적 내용이외에도 우리는 짐멜이 도시를 하나의 “총체적인 효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한다.

“인간의 범위는 오히려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그로부터 나오는 효과들의 총체에 의해 구성된다. 마찬가지로 도시는 그것의 직접적 범위(confines)를 넘어서 확대되는 총체적 효과(total effects)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80)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짐멜에 따르면 도시라는 일의적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라캉의 논제를 응용해 **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라는 대상은 고정된 의미체, 혹은 이미 확고히 규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라는 경계 너머에 존재하는 총체적인 효과로 (사후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도시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매우 공허해지는데, 이 개념이 공허해지면 질수록 포괄적인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겨나고 따라서 도시과학이 아니라 인문학으로서의 도시연구 방법론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세네트는 짐멜의 도시 연구방법론을 변증법적 방법론이라고 부른 바 있다. 하지만 세네트는 짐멜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변증법적 방법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 필자는 알튀세르가 프로이트와 라캉을 원용해 중층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듯이 도시는 중층결정되어 되어 있으며, 그러한 한에서 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sup>81)</sup> 도시라는 대상은, 도시는 물론 도시 너

80) 짐멜, 앞의 글, 48쪽.

81) 알튀세르 지음, 이종영 옮김, 『맑스를 위하여』, 백의, 1997, 102쪽 이하 참조.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알튀세르의 비환원주의적 과학론 정립 시도에 관해서는 홍준기, 『라캉과 현대철학』, 문학과지성사, 1999, 197쪽 이하, 그리고 홍준기, 「맑시즘과 정신분석: 알튀세르 맑시즘에 관한 새로운 정치, 윤리적 독해의 시도」, 『라캉과 현대정신분석학회 편,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제8권 2호, 2006년 겨울 참조.

며에서 존재하는 효과들의 총체로서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지 특정한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알튀세르가 라캉 이론을 원용해 부재하는 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듯이 도시라는 대상은 부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sup>82)</sup> 이렇게 본다면 도시는 규모, 크기, 밀도라는 좁은 의미의 변수들은 물론 그것이 낳는 심리적 효과, 분업, 화폐와 같은 경제적 요소, 문화 등 다양한 요소가 중층결정되는 장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도시를 환원주의적 연구 방법론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사회)과학의 한계를 넘어서 도시인 문학으로서의 도시연구의 방법론적 기초로 삼을 수 있다.

#### 4.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정체성:

##### 글로벌 시대의 도시인의 문화정체성

##### 1) 문화적 과정으로서의 지구화

앞에서 필자는 도시학 연구가 경제주의적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대안으로 비록 조나단 프리드먼이 좁은 의미의 도시학자는 아니지만 그의 이론을 원용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제 이하에서 프리드먼의 이론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82) 알튀세르의 다음 언급을 참조하라. “이 결과는 프로이트에 대한 우리의 독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자크 라캉이 수년동안 고독하게 비타협적으로 명쾌하게 수행한 이론적 노력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루이 알튀세르 지음, 김진엽 옮김, 『자본론을 읽는다』, 앞의 책, 17쪽.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는 도시를 도시라는 대상으로 구성하는 최후의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라캉의 표현에 따르면 도시의 원인은 부재한다고 다시 말할 수 있다. ‘부재하는 원인’이라는 라캉이 제시하는 인과론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히스테리의 원인은 중층 결정되어 있다는 논제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다. 히스테리의 원인은 실제적 사건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구성된다는 의미에서 실제적으로는 부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홍준기, 『자크 라캉: 프로이트로의 복귀』, 홍준기 외 편, 『라캉의 재탄생』, 창작과비평사, 2002, 25쪽 이하 참조.

조나단 프리드먼의 이론이 이 글의 취지와 관련해 중요한 점은 우선 그가 지구화의 맥락 속에서 문화의 문제에 천착한다는 것이다. 지구화라는 개념과 현상이 확대되면서 현재의 도시 연구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지구화의 맥락에서의 도시의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연구들이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구화시대에서의 도시의 특징들을 설명함에 있어 문화적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언급했듯이 하비, 사센, 존 프리드먼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면 조나단 프리드먼은 자신의 연구에서 이러한 입장을 피하고자 하지만 그는 결코 문화결정론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그는 문화를 논함에 있어서도 지구체계라는 정치, 경제적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문화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경제주의와 문화주의의 양 극단을 피해간다. 그리하여 그는 경제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정치, 경제적 제도와 문화적 과정을 구분하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문화주의적 접근을 회피하기 위해 제도적 과정과 문화적 과정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sup>83)</sup> “제도적 과정과 문화적 과정을 범주상 구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sup>84)</sup>는 것이다.

그는 문화를 고립된 실체가 아니라 지구화라는 맥락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의 망 속에서 다룬다. 그리하여 그는 지구화를 특히 “문화로 지시되는 과정, 즉 지구적 영역에서의 의미부여와 관련된 과정 <sup>85)</sup>으로 정의한다. 프리드먼은 스스로를 지구체계 인류학의 연구자로 명명하는데, 그의 연구의 핵심은 지구체계 속에서 지구화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 및 정체성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논의를 더 진행하기 전에 여기에서 프리드먼의 핵심적 전제 및 용어를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지구체계는 지구화를 내포한다.<sup>86)</sup>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지구체계의 존재가 지구화의 전제가 되는데, 프리드먼이 말하는 지구체계가 월리스타인이 말하는 세계체제과 구분되는

83) 조나단 프리드먼, 앞의 책, 357쪽.

84) 같은 책, 356쪽.

85) 같은 책, 352쪽.

86) 같은 책, 353쪽.

것은 전자는 지구체계를 자본주의의 성립과 더불어 생겨난 현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심지어 5천년전 구체계를 포괄하는 상업에 기초한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sup>87)</sup> 프리드먼이 말하는 지구체계는 물론 경제적 활동을 중심으로 세계의 집단들이 결합 혹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개념이지만 전통적인 맑시즘과는 달리 생산보다는 재생산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또한 가지며<sup>88)</sup> 이론적으로는 맑스보다는 막스 베버의 견해를 따른다.<sup>89)</sup>

지구체계에서 발생하는 지구화는 제도적 과정과 문화적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언급했듯이 양자는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문화란 문화적 측면에서의 지구화와 관련된 과정으로서 “지구적 영역에서의 **의미부여**와 관련된 과정<sup>90)</sup>이다. 그리고 프리드먼에 따르면 지구체계에서 문화적 과정은 “정체성 형성<sup>91)</sup>과 관련된 과정이다. 지구체계 하에서 문화적 과정은 중립적인 공간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헤게모니와 그것에 대한 종속으로 형성되는 정체성, 그리고 대항적 정체성의 형성, 즉 지배적인 담론과 종속적인 담론 등과 같은 현상을 이해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sup>92)</sup> 예컨대 지구화시대에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은 영어를 습득해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는데, 이러한 과정은 미국의 헤게모니에 종속된 정체성과 이에 대한 대항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미국적 문화를 강력하게 흡수하거나 이에 반발하도록 만든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문화라는 개념은 한 사회체계의 “특수성, 인성과 경험, 그리고 세계의 표상들의 생산이나 실천전략의 형성 방식에 관한 특

87) 같은 책, 48쪽. 지구화 문제를 다룬 또 다른 학자인 로버트슨 역시 윌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이 맑스주의적 경제주의-기능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R. Robertson.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SAGE publications, London, 1992, 66쪽.)

88) 프리드먼, 앞의 책, 40쪽.

89) 같은 책, 48쪽.

90) 같은 책, 353쪽.

91) 같은 책, 352쪽.

92) 같은 책, 53쪽.

수성만을 지칭하 93)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프리드먼은 문화를 매우 좁은 방식으로 정의하는데 이러한 정의가 갖는 난점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정체성(identity)이란 동일화(identification)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프리드먼은 지구적 차원에서의 문화는 정체성 혹은 동일화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sup>94)</sup> 물론 지구적 차원에서의 문화변동, 즉 정체성과 동일화 형성은 더 포괄적인 체계인 세계체계의 변동의 산물이다. 그리고 프리드먼은 **지역성(locality)** 역시 지구화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국민국가, 제3, 4세계, 종족성, 종교운동과 같은 지역정체성 형성도 지구 체계의 변화의 틀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 방법이 갖는 장점은 지구성의 대칭 혹은 반대 개념인 지역성도 지구성의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세계경제 속에서 자본축적이 일반적인 탈중심화와 미국 헤게모니의 몰락을 보여주면서 하와이 원주민들은 자신을 (재)동일화하고자 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sup>95)</sup> 하와이인 운동은 “근본적으로 공식적 표상과 맞지 않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에 있다.”<sup>96)</sup> 지구화과정 속에서 하와이인들은 오히려 자신의 특수한 종족성과 다시 동일화하고 지역적 특수문화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한다.

프리드먼은 문화적 지구화 과정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지구화된 혹은 지구화되는 제도과 관련된 개인들 사이에서 지구적 인식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sup>97)</sup> 고급외교관, 국가수뇌부, 구호단체직원, 국제연합 같은 국제 조직의 대표로 구성되는 국제적 엘리트들, 그리고 예술작품을 거래하는 국제적인 문화엘리트, 출판과 언론매체의 대표자들, 문화산업의 엘리트들은 서로 문화적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한

---

93) 같은 곳.

94) 같은 책, 353쪽.

95) 같은 책, 226쪽.

96) 같은 책, 228쪽.

97) 같은 책, 362쪽.

이미지, 세계의 이미지를 생산하는 언론의 표상, 사건들에 직접 관여한다. 하지만 이것이 헤게모니적 동질성을 내포하지 않는다. 또 그들의 정체성이 전적으로 체제 내에서 그들이 놓여 있는 위치의 산물임을 의미하지 않는다.<sup>98)</sup>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체성, 문화는 세계 체제의 직접적 반영이 아니라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세계은행은 모든 것을 쏟아 부는 발전주의에서 보족체제와 생태시스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은행 자체가 아니라 현대성의 특정한 정체성 공간과 그것의 역사적 동요에서 찾을 수 있다.<sup>99)</sup> 바로 여기에서 프리드먼의 접근방식은 부르디외와 차이가 난다. 부르디외와 달리 프리드먼은 주체의 보다 적극적인 문화적 개입의 가능성을 이론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까지 프리드먼의 세계체제 인류학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이하에서 지구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체성 형성과 변화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 2) 자본주의 정체성 공간과 그 변동

지구화의 확산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도시가 지구화하는 효과를 낳으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낳는다. 사센과 같은 이론가들은 세계도시라는 개념으로 도시의 지구화를 설명한다. 지금까지 논의했듯이 이러한 경제주의적인 관점만으로는 지구화된 도시의 변화를 모두 설명할 수 없으므로 문화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적 관점에서의 지구화란 지구화에 대한 의식인데, 문화적인 변동은 개인적 혹은 집단적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국적인, 특히 미국을 대표로 하는 서양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간단한 예를 들면 영어에 관심이 엄청나게 고조되었으며 영어구사 능력이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화는 대한민국 국민들 개개인에 대한 정체성 형성에 깊

98) 같은 곳.

99) 같은 책, 363쪽.

은 영향을 끼친다. 한편으로는 세계화된 국내분위기에 적응하면서 자신을 보다 세계적인 혹은 미국적인 정체성이 강한 사람으로 자신을 위치시키는가하면, 역으로 서울광장을 메운 항위 시위를 낳은 소고기 파동에서 볼 수 있었던 반미적인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화의 흐름에 대항하는 반대운동이 비록 일시적이라고 할지라도 일어나게 된다.

세계화, 그리고 세계화의 중심인 미국의 생산물과 관련해 일종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주체의 탈정체성적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세계화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 등 외부의 자본침투에 의해 세계화된 하와이에 오히려 하와이의 원주민들의 정체성 및 문화전통 복구 운동이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인가? 세계화라는 보편주의적 현상과 지역화 혹은 종족화라는 특수주의적 현상이 공존하는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질문에 대답하려고 노력한 학자들 중의 하나가 앞에서 언급한 조나단 프리드먼이다. 그는 세계화와 그에 동반되는 지역화 혹은 종족화 운동의 내적 논리를 탐구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

프리드먼에 따르면 지구체계에서 안정적인 헤게모니 국면은 지배적인 중심부와 주변부의 위계체제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중심부는 자본축적의 핵심적 지대로, 주변부는 원료와 노동을 위한 공급 지역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세계화의 심화가 일어나면서 자본축적의 탈중심화가 발생한다. 즉 중심부의 자본수출로 새로운 중심부가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즉 중심부에서는 오히려 산업지역이 쇠퇴하고, 생산과 수출에서 벗어난 거대자본은 부동산, 주식시장, 예술품, 문화재, 사치재에 보다 상업적으로 투자된다. 탈산업화와 고급 주택화가 발생하며, 빈부의 격차가 심화 되고, 슬럼화와 여피화라는 역설적 현상 등장한다.<sup>100)</sup> 헤게모니 축적의 탈중심화는 자본들간의 경쟁심화와 헤게모니의 변화를 내포한다. 프리드먼은 헤게모니 축적의 탈중심화의 현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① 공간적으로 자본축적의 탈중심화 그리고 중심부-주변부 관계의 변

---

100) 같은 책, 301쪽.

환과 이에 수반된 새로운 축적 중심부의 출현.

- ①-1 몇몇 선택된 지역에서의 급속한 발전, 근대성과 세계소비시장의 중심부의 출현.
- ② 중심부에서의 상품화의 진전: 사회관계의 자본주의화와 사회세계 측면들의 점진적인 상품화, 즉 후기산업사회 혹은 탈근대적 진화로의 진전.
- ③ 중심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생산으로부터 의제(擬制)적 축적, 부동산, 문화산업으로의 자본이동.(302-303)

탈중심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이러한 지구체계의 변화는 이전의 중심부에서 소비와 투기적 축적으로의 부의 이전은 사회구조상의 변화, 문화적 변화를 수반한다.<sup>101)</sup> “지구체계 경제학은…문화를 구성하는 과정의 물질적 측면이다. <sup>102)</sup> 벤야민과 마찬가지로 프리드먼은 경제적 과정과 문화적 과정을 서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면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프리드먼은 정체성 공간을 이야기한다. 정체성 공간은 말하자면 경제적 과정과 문화적 과정을 연결 짓는 일종의 중간공간이다. 정체성 공간은 경제적 과정과 문화적 과정을 연결하는 역동적 작용인자(operator)이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의 원천이며 따라서 표상도식을 만들어 내는 고유한 원동력 이다.<sup>103)</sup>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세계체제에서의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발생한 정치경제적 변동은 개별 혹은 집단주체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시키며 이러한 정체성 형성과정은 다른 아닌 문화적 과정이다. 정체성 형성 공간으로서의 문화공간은 반드시 경제적 과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다른 양태의 경제적 과정을 유도하며 산출할 수 있는 고유한 원동력으로 작동한다.

---

101) 같은 책, 303쪽.

102) 같은 책, 304쪽.

103) 같은 곳.

비록 치밀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프리드먼 이론의 장점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정체성을 상호 관계 없는 독립적 요소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과 전통적 가치들의 재확인, 국가 관료주의적 자본주의의 균일화에 대한 저항, 천박함 평범함과 대중문화 등에 대한 저항으로 이론화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세계화의 맥락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추상화, 균질화, 보편화하는 문화적 상황에 대해 대항적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래쉬 등이 밝혔듯이 현대사회는 나르시시즘화하는 경향이 있다.<sup>104)</sup> 우리는 이를 라깡적 관점에서 더 정확히 표현해 정신분열화, 즉 파편화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근대사회에서 주체는 추상화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체는 자아의 이상(라깡)로 구성되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 현대성이란 보편화된 매개, 법, 추상적인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이므로 근대사회에서 각 인간은 보편적인 상징적 질서에 종속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비록 각 개인은 타인들 간의 관계에서 소외감과 고독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을지라도 근대화된 주체는 보편적인 원리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형을 띠게 된다. 짐멜도 간과했듯이 이러한 자아의 이상으로 형성된 주체적 정체성은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추상적 자아이므로 현대적 주체는 이러한 이상적인 자아의 부분과 이러한 역할로부터 벗어난 어떤 다른 주체로 분열된다.

바로 여기에서 현대적 주체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도출된다. 도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그 사회적 역할로부터 벗어난 고유한 주체성의 분열을 적절히 견딜 수 있거나, 추상적인 사회적 역할로부터 벗어나 일정 정도 감성적이고 고유한 자신의 인성의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커다란 문제없이 삶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근대주의적 정체성). 하지만 사회적 자아가 요구하는 역할이 너무 과중하거나, 이러한 과도한 부하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른 기제가 없다면 주체는 정신병리적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 근대적 정체성 형성

---

104) 같은 책, 306쪽.

의 대전제였던 보편적이고 추상적 원리와 법칙으로부터 벗어나 특수주의적 욕망에 사로잡힌다. 달리 말하면 타자성으로부터 일정정도 벗어나 나르시시즘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체는 타자성의 부재로 인해 어떤 추상적인 원리로 다양한 삶의 경험을 보편적 형태로 종합하지 못하고 더욱 파편화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종합 능력마저 상실한 상태가 다름 아닌 정신분열 상태이다.<sup>105)</sup>

프리드먼은 현대적 주체의 병리화라는 정신분석적 이론을 바탕으로 세계화시대에 헤게모니의 탈중심화 현상과 더불어 등장하는 세계문화의 변화와 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세계체제의 중심부에서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문명의 진보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그에 상응하여 켈트, 신흥종교로부터 원시주의, 새로운 전통주의, 즉 문화적으로 새롭게 정의된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문화운동이 폭발적으로 등장한다. 이와 함께 중심부에서는 바스크, 카탈로니아에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 이르기까지 민족과 종족의 파편화가 진행되었고, 제4세계로 일컬어지는 집단인 아메리카인디언, 하와이인, 멜라네시아인에게도 카스텀(Kastom, 전통문화부활) 운동 등의 문화적 정치 운동이 급격하게 성장했다.”<sup>106)</sup>

부연하면, 탈중심화가 일어나기 전의 자본주의적 근대주의의 문화정체성이 쇠퇴하면서 전통주의, 원시주의, 혹은 탈근대주의의 문화정체성이 형성된다. 근대주의 정체성은 자아의 이상과 이에 포섭되지 않는 주체성 사이의 균열로 인해 다른 형태의 정체성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맹아를 내포하고 있다. 라캉 정신분석 이론의 관점에서 말하면 상징계에 진입함으로써 인간은 추상적 법질서를 받아들임으로써 상징적 질서에 편입/종속된 주체가 되지만, 이 속에서 발생하는 소외를 견딜 수 없는 주체는 도착증, 혹은 심지어 정신병적 상태로 이행할 수 있다. 라캉 정신분석이

105) 본문에서 언급한 라캉주의 임상론과 관련된 상세한 논의로는 조엘 도르 지음, 홍준기 옮김, 『라캉과 정신분석임상: 구조와 도착증』, 아난케, 2002 참조.

106) 프리드먼, 앞의 책, 1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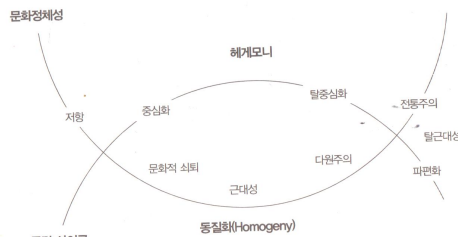
론으로부터 귀결되는 이러한 논의를 일목요연하게 다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근대적 정체성=신경증 상태: 사회적 자아와 내밀한 주체 사이의 분열
- 이러한 근대적 신경증적 자아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향
  - ①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하며 근대적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과제를 비교적 잘 수행하는 인간: 문화적,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상황에서 주로 발생.
  - ② 근대성이 요구하는 역할 수행에 실패했거나, 차차 그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헤게모니 장악에 실패했거나 주변부 도시 혹은 국가에 다수 존재할 수 있는 정체성.
    - ②-1 나르시시즘(도착증, 정신병)으로의 이행: 병리적 상황
    - ②-2. 나르시시즘화하지 않으면서 근대주의적 정체성을 극복하려는 시도: 근대성의 극복—일정 정도의 개인이나 집단에 존재가능한 정체성의 형태.

여기에서 우리는 프리드먼, 그리고 래쉬 등의 현대문화 진단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프리드먼, 래쉬 등이 현대문화를 나르시시즘이라고 정의한 것은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현대문화가 반드시 병리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설명하기에 그들이 사용하는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는 너무 포괄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하에서 도표로 제시하겠지만, 예컨대 프리드먼이 사회적 장의 탈통합화의 결과로 발생한 자아의 변화는 폭력, 사랑, 종교, 병리적 나르시시즘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은 그것이 갖는 의미, 영향, 강도 등에 따라 다양한 가치평가가 가능할 수 있는데 이를 한마디로 나르시시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설명력이 적다. 앞으로 다시 언급하겠지만 바로 그것이 프리드먼 이론이 갖는 약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프리드먼은 이러한 변화 모두를 한마디로 나르시시즘적 퇴화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프리드먼 이론에서 또 다른 모순을 야기한다. 근대주의의 추상성을 결코 옹호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면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성된 정체성을 나르시시즘적 퇴화라는 폄하적인 명칭을 부여하는 모순 말이다.

어쨌든 프리드먼은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정신분석이론의 착상을 문화적 상황에 적용한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발전이 심화되면 전통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추상적인 자아정체성이 발전하게 되지만, 이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던 헤게모니 국가의 약화가 발생해 지구적 차원에서 탈중심화가 일어나면, 달리 말하면 성장하던 제국의 몰락 시기에는 역방향의 문화적 과정이 진행된다. 주류문명의 정체성이나 근대정체성은 더 이상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대안적 정체성을 모색하게 된다는 것이다.<sup>107)</sup> 프리드먼은 문명과 문화 개념을 대칭적으로 사용한다. 헤게모니를 장악한 주류제국에서 문명이 발흥하고, 반면 이러한 주류 제국의 토양에서 발생한 근대적 정체성이 쇠퇴하면 전통과 원시성, 켈트 등에 기반을 둔 문화 혹은 자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그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산물로서 전통적 정체성의 상실에서부터 종교적 혹은 민족적 문화정체성의 재출현에 이르는 포괄적인 과정의 상관관계를 다음 그림으로 설명한다.<sup>10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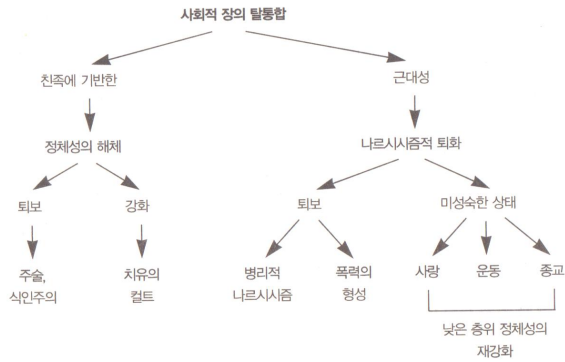


문화와 문명 사이클

107) 같은 책, 7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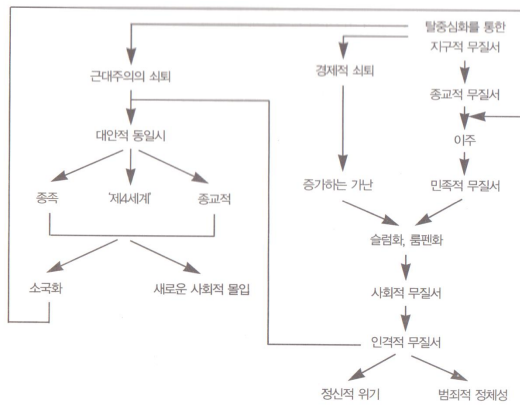
108) 같은 곳.

또 다른 곳에서 프리드먼은 근대주의의 쇠퇴, 즉 사회적 탈통합 과정의 진행되면서 생겨나는 자아의 상태를 다음 도식으로 표현한다.<sup>109)</sup>



사회적 탈통합과 자아

그리고 더 나아가 탈중심화를 겪고 있는 지구체제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적 변동을 다음 도표로 보여준다.<sup>110)</sup>



체제 중심부의 지구적 질서/무질서

109) 같은 책, 434쪽.

110) 같은 책, 437쪽.

프리드먼은 좁은 의미의 도시학자는 아니지만 세계화시대의 도시문화와 도시인의 문화적 정체성의 성격과 변화,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짐멜이 간파했던 대도시에서의 소외의 문제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짐멜에 따르면 대도시인은 소외를 대가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이는 아주 이상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소외가 정도가 너무 크면 소외를 대가로 획득할 수 있는 자유조차 사라지므로, 인간은 다시 전근대적 문화정체성, 즉 전통으로 되돌아간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사태, 범죄, 혹은 종교적 운동, 소규모 공동체 운동, 주술, 미신, 치유의 켈트 등 다양한 운동은 근대적 도시문화가 낳은 문제를 극복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프리드먼은 이러한 탈중심화된 도시운동들을 나르시시즘화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지만, 언급했듯이 보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정신분석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운동 그 자체를 나르시시즘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 프리드먼이 미성숙한 상태라고 명명하는 ‘사랑’, ‘운동’, ‘종교’ 등과 관련된 개인적, 집단적 행위는 정상적인 주체가 행할 수 있는 선택지 중의 하나일 뿐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화 과정 속에서 극단적으로 현대화되고 소외를 야기하는 대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나르시시즘적이지 않으면서도 근대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항목(②-2)을 덧붙여야 프리드먼의 이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프리드먼은 근대적 정체성의 쇠퇴 혹은 근대적 정체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다양한 문화적 운동 혹은 정체성을 미성숙한 상태 혹은 퇴화의 상태로 명명하지만 이러한 성급한 가치 판단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르시시즘의 상태로 설명한 여러 운동들은 선악의 구도로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도시에서의 소규모 공동체 운동은 자본주의적 현대성이 낳은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 운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집단이기주의와 같은 현상이기도 하다. 그렇게 본다면 소규모 운동 보다는 사회전체적 차원에서의 법률적, 복지적 차원의 개선을 통해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운동이 더 바람직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근대주의의 정체성을 바탕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혹은 좁은 범위의 친밀한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익명의 사람들이 다수 모일 수 있는 개방된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근대주의적 사고이지만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한된 집단에 의해 운영되는 생활 공동체나 종교공동체 같은 것은 종종 정치적 보수주의와 결탁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정치적 보수주의라는 색채를 띠는 것도 아닌 긍정적 측면도 갖고 있음은 물론이다.

프리드먼 이론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약점은 근대주의의 정체성에는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의한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의 분류에 따르면 근대성의 위기는 전통주의 혹은 탈근대주의(원시주의)의 정체성을 산출한다. 그리하여 프리드먼은 문화를 전통주의에 귀속시키고 자연을 탈근대주의(원시주의)의 고유한 특징으로 간주한다.<sup>111)</sup> 프리드먼은 근대성의 위기에 대응으로 형성된 어떤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완전한 대안으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가 가능한 한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기술하고자 하는 인류학자로서의 그의 학문적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근대주의의 정체성에 문화라는 요소가 부재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프리드먼의 관점에서 문화란 구체적인 것, 즉 혈연이나 나이, 자연의 범주, 전통과 관계되어 발생하는 “구체성”, “직접적이고 상호인격적인 관계가 지배적인 것, 그리고 “인간존재의 유의미하고 구조화된 도식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며 따라서 문화는 전통과의 관계를 보존하는 전통주의적 정체성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프리드먼이 근대주의를 비판하면서 전통주의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는 근대성(현대성)의 본질이 화폐 혹은 사회적 기능 등을 매개로 인간을 비인격화 혹은 추상화하는 것에 있다고 해서 근대주의에 고유한 어떤 나름의 문화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

---

111) 같은 책, 152-153쪽.

문을 던질 수 있다. 요컨대 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프리드먼은 근대주의에 대해 과도하게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대주의에 어떤 유의미한 문화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근대성의 극복이라는 이 글의 범위 내에서는 결코 다룰 수 없는 커다란 질문에 봉착한다. 근대성의 너머란 프리드먼이 종종 암시하듯이 전통주의의 장점을 수용하는 것에 있을까 아니면 몇몇 논자들이 주장하듯이 소위 탈근대주의, 즉 포스트모던적 정체성의 확립에 있는 것일까? 하지만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관계의 문제 역시 매우 광범위한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 상세히 다룰 수 없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근대주의의 옹호자와 포스트모던의 옹호자 사이에는 많은 논쟁이 있어왔지만 그 논쟁은 어떤 확고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글의 취지와 관련해 필자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현상을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상실한 상대주의 정도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결국 본질주의, 혹은 환원주의에 기반한 근대주의를 옹호하는 결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근대주의를 본질주의자라고 무조건 비판하거나, 혹은 역으로 탈근대주의를 상대주의라고 폄하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오늘날은 근대, 탈근대 논쟁이 담아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한 세계가 된 듯하다. 심지어 탈근대주의라는 이념의 스펙트럼도 매우 다양하다. 어떤 논자들은 진정으로 진리성에 대한 성찰을 포기한 상대주의로 경도되는가 하면, 제임슨이나 하비의 경우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자본주의가 낳은 문화적 현상일 일뿐이며 그러한 한에서 하비나 제임슨에게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주의의 현상일 뿐이다. 도시이론가 하비와 문화이론가 제임슨은 도시와 문화 현상을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만 설명하고자 하므로 이들은 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진정한 본질주의적 근대주의의 이론가이다. 근대, 탈근대의 논쟁에 대해 서술할 여유는 없지만 본 논문의 취지와 관련해 말하고 싶은 것은 현대사회는 고전적인 근대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이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도시를 설명하는 것

에 반대해 문화라는 독자적 영역을 중시하는 이론가들을 소개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근대주의 정체성을 반대하며 문화적 영역에서 근대주의 정체성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프리드먼의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프리드먼은 콩고에서의 의복 실천, 즉 “외모와 존재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112) 세계관 속에서 행해지는 의복에 대한 콩고인의 집착적 관심은 단순히 나르시시즘적 퇴행이 아니라 “실질적 권력 구조에 대한 잠재적 위협 113)이 되며 그러한 한에서 근대주의적 헤게모니에 대한 저항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프리드먼은 비록 몇몇 한계를 보이기는 했으나 왜 세계화된 도시에서 확실적인 문화 혹은 문화적 정체성이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이 등장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주었으며, 더 나아가 세계화 시대에 등장하는 다양한 정체성이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지배 헤게모니에 대한 위협 혹은 저항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을 대신하여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뒤늦기는 했으나 우리나라의 도시 역시 세계화의 큰 흐름 속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프리드먼의 이론이 갖는 장점은 경제주의적 견해가 지배하고 있는 도시론 분야에 문화적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의 성격과 형성과정, 사회, 문화적 의미들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달리 말하면 전통과 현대성, 종교와 소규모 공동체 운동 등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대도시의 다양한 측면들을 비환원주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제공했다는 점<sup>114)</sup>에서 비록 프리

---

112) 같은 책, 193쪽.

113) 같은 책, 195쪽.

114) 우리나라의 도시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필자의 향후 과제로 이 글에서 분

드먼은 좁은 의미의 도시학자는 아니지만 도시인문학 분야에 원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학자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여전히 근대주의 그 자체에 고유한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여기에서 근대성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자 중 하나였던 짐멜, 그리고 벤야민의 견해를 참조할 수 있다. 짐멜은 근대주의가 고도로 발전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확보될 수 있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억압 없는 친교(Geselligkeit)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며<sup>115)</sup>, 벤야민은 대도시의 충격 경험을 통해 촉각적 지각이 발달하고 억압되었던 고유한 주체성과 경험이 등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방된 도시를 꿈꿀 수 있었다.<sup>116)</sup> 해방된 개성과 자유, 감성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며 이와 더불어 직업적 역할과 전통에 의해 부과된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대도시가 아닐까? 그러한 한에서 짐멜과 벤야민 이론은 프리드먼 이론이 가진 비관주의적으로 비칠 수도 있는 논의들을 상당히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지?

(서울시립대학교)

---

격적으로 다룰 수 없었다.

- 115)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대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계층의 자유롭고 개성 있는 교류와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짐멜의 친교 개념에 대해서는 김덕영, 『짐멜이나 베버냐?』, 한울, 2004, 143쪽 이하 참조.
- 116) 이에 대해서는 홍준기, 「발터 벤야민과 도시경험: 벤야민의 도시인문학」, 홍준기 편집, 『발터 벤야민: 모더니티와 도시』, 라움, 2010, 57쪽 이하 참조.

## 참고문헌

- 기든스, 앤소니 지음, 권기돈 옮김,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새물결, 1997.
- 도르, 조엘 지음, 홍준기 옮김, 『라캉과 정신분석임상: 구조와 도착증』, 아난케, 2002.
- 딜릭, 아리프, 「초국주의의 이론과 실천: 활용, 요용, 남용」,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편, 『도시인문학연구』, 제2권 2호, 2010.
- 사센, 사스키아 지음, 남기범, 유환중, 홍인욱 옮김, 『경제의 세계화와 도시의 위기』 푸른길, 1998.
- 새비지, 마이크/워드, 알랜, 김왕배, 박세훈 옮김,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한울, 2002.
- 손더스, 피터 지음, 김찬호, 이경춘, 이소영 옮김, 『도시와 사회이론』, 한울, 1998.
- 스미스, 마이클 피터 지음, 남영호, 홍준기 외 옮김, 『초국적 도시이론』, 한울, 2010.
- 알튀세르, 루이 지음, 김진엽 옮김, 『자본론을 읽는다』, 두레, 1991.
- \_\_\_\_\_, 김동수 옮김, 「아미앵에서의 주장」, 알튀세르, 『아미앵에서의 주장』, 솔, 1991.
- \_\_\_\_\_, 이종영 옮김, 『맑스를 위하여』, 백의, 1997.
- 김덕영, 『현대의 현상학: 게오르그 짐멜 연구』, 나남출판, 1999.
- \_\_\_\_\_, 『짐멜이나 베버나?』, 한울, 2004.
- 제임슨, 프레드릭 지음, 조성훈 옮김, 『지정학적 미학』, 현대미학사, 2007.
- 짐멜, 게오르그 지음, 이덕영 옮김,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나남출판, 1999.
- 프리드먼, 조나단 지음, 오창현, 차은정 옮김, 『지구화 시대의 문화정체성』, 당대, 2009.
- 하비, 데이비드 지음, 구동희, 박영민 옮김,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1997.

- 홍준기, 『라캉과 현대철학』, 문학과지성사, 1999.
- \_\_\_\_\_, 「자끄 라캉: 프로이트로의 복귀」, 홍준기 외 편, 『라캉의 재탄생』, 창작과비평사, 2002.
- \_\_\_\_\_, 「맑시즘과 정신분석: 알튀세르 맑시즘에 관한 새로운 정치, 윤리적 독해의 시도」, 라캉과 현대정신분석학회 편,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제8권 2호, 2006년 겨울.
- \_\_\_\_\_, 「발터 벤야민과 도시경험: 벤야민의 도시인문학」, 홍준기 편집, 『발터 벤야민: 모더니티와 도시』, 라움, 2010.
- Berman, Marshall, “Why modernism still matters? , S. Lash and J. Friedmann (ed.), *Modernity and Identity*, Blackwell, Oxford UK & Cambridge USA.
- Hong, Joon-kee, *Der Subjektbegriff bei Lacan und Althusser*, Peterlang, Frankfurt am Main, 2000.
- Lancière, Jaques, *Le partage du sensible*, La fabrique édition, Paris, 2000.
- Lash, Scott/Friedmann, Jonathan(ed.), *Modernity and Identity*, Blackwell, Oxford UK & Cambridge USA.
- Lefèbvre, Henri,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Oxford UK & Cambridge, 1991.
- Lefèbvre, Henri, *The Urban Revolu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London, 2003.
- Ortigue M.C. and E., *Œdipe Africain*, L'Harmattan, Paris, 1984.
- Park, Robert, “The City: Suggestions for the Investigation of Human Behavior in the Urban Environment , R. Sennet(ed.), *Classic Essays on the Culture of Citie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1969.
- Redfield, Robert, “The Folk Society , R. Sennet(ed.), *Classic Essays on the Culture of Citie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1969.
- Robertson. Roland,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SAGE publications, London, 1992.

Sennet, Richard(ed.), *Classic Essays on the Culture of Citie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1969.

\_\_\_\_\_, “Introduction , R. Sennet(ed.), *Classic Essays on the Culture of Citie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1969.

Wirth, Louis, “Urbanism as a way of life , R. Sennet(ed.), *Classic Essays on the Culture of Citie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1969.

##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Metropolitan Residents in the Age of the Glob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Method of the Urban Humanities  
— Focused on the Theory of G. Simmel  
and Jonathan Friedmann

Joon-Kee Hong

This paper aims to find out the research method based on the humanities about the cities which are frequently being studied recently in Korea. Because traditionally the cities have been studied by the social scientist and the urban studies became the specific themes of modern society through the marxist theorists, the economic-reductionistic method has been the main stream until now. This paper introduce, analyse and criticize the theories of Simmel and Friedmann with also focusing on the epistemological arguments of Althusser and Lacan in order to overcome such a problem. After critically reviewing the methodological problems which began with the works of the Chicago school(Wirth, Park etc.), this paper tries to gain from Jonathan Friedmann the insightful answer, which explains how the cultural identities in the globalized metropolis and which relations they have to each other, and from Simmel we extract the dialectical urban theory which is very compatible with the psychoanalytical approach to the epistemology and humanities, and finally try to find out the non-reductionist method for the urban humanities.

Key Words: City, Simmel, Jonathan Friedmann, Psychoanalysis, Metropolis, Modernity, Globalization

철학탐구 제29집

홍준기 e-mail: junkh7@hanmail.net

투 고 일	2011년 04월 30일
심 사 일	2011년 05월 09일
게재확정	2011년 05월 18일